

참고자료

◆ 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 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의 조건과 필요성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사람(지역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이다”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

◆ 국립공원, 지질공원 및 기타 보호지역의 특성 비교

구분	국립공원	지질공원	다른보호지역 (예:천연기념물 등)
규제정도	매우 강함	거의 없음	매우 강함
재정지원	지원 많음	지원적음	상황에 따라 변동
선정방식	지정	인증	지정
해제방법	타율적 (군사상, 공익상 목적, 천재지변, 지정기준 결여)	자율적 (자발적 미이행 혹은 재인증 취소)	타율적 (해당 법규적용 허가, 해제 등)
관리원칙	보전>이용	보전과 이용의 조화	보전>이용

- ◆ 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 인증기준 *법적근거 :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
 -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 생태적 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 지질공원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한 곳

- ◆ 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 인증기간
고시일로부터 4년(4년마다 재평가)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부산은 인구 350만 내외의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구, 해안, 산지에 뛰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하고도 독특한 풍광과 지질 및 지형유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곳곳에는 교육적 가치가 뛰어난 다양한 특성의 지질유산들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기반시설 등 교육 및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질탐방로가 개발되어 있어,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질유산의 자연사적 가치와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형지질공원입니다.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연의 국내 최대의 현생 삼각주인 낙동강 하구, 고대 박물관으로 가는 바닷길 몰운대, 공룡의 낙원을 뒤흔든 지진을 보여주는 두송반도, 불의 신이 사는 호수 송도반도와 두도, 호수에서 태어나 바다와 맞선 바위들의 향연 태종대,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이기대, 불타는 대지 장산, 신화가 잠든 바위산 금정산, 마그마가 빚어낸 천연 공예품 구상반려암, 다양한 암석들의 하모니 백양산 등 총 12개의 지질명소가 있습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낙동강하구

낙동강은 남한에서 제일 긴 강(유역면적 23.384㎢, 유로연장 510.36km)으로 강원도 태백의 함백산 황지에서 발원하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일원을 지나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서 두 개의 물길로 갈라져 남해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낙동강과 바다가 어울린 천연의 모래섬인 낙동강하구는 모래나 자갈이 쌓여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크고 작은 모래톱(연안사주)과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섞이는 기수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의 훌륭한 보금자리입니다. 특히 낙동강하구에 위치하여 철새 도래의 중심지가 된 을숙도는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멋있다는 뜻의 '을숙'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와, '새[乙]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淑] 섬'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후 덕분에 강가의 모래와 갈대 등과 더불어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치기 적합하여 매년 167종 13여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또한 낙동강하구에는 대마등, 맹금머리등, 장자도, 신자도, 백합등, 도요등, 진우도로 불리는 모래톱들이 있으며, 이들의 지형은 해마다 살아 움직이듯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된 퇴적물이 남해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 이동하고 쌓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낙동강하구 지오투레일과 에코센터의 전시관, 아미산 전망대를 답사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낙동강의 지질, 지형과 생태를 이해하고 생동하는 '지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몰운대

고대 박물관으로 가는 바닷길인 몰운대는 약 8천만년 전 백악기 말에 쌓인 하부다대포층과 그 후 부산지역 지각의 변형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몰운대는 낙동강 하구와 바다가 맞닿는 곳에 자리한 명승지(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7호)로 16세기까지 '몰운도'라는 섬이었으나, 낙동강 상류에서 밀려온 토사가 쌓여 다대포와 연결되면서 현재에는 전형적인 육계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몰운대라는 이름은 구름 속에 빠진 섬이라는 시화적(詩畵的)인 이름으로 낙동강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이면 그 안개와 구름에 잠겨서 섬이 보이지 않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과거 몰운대는 대마도와 가까워 일본과 교역하는 주요 해상로로 이용되었으며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여 해상 노략질을 일삼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선봉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단층과 단층암, 암맥, 광맥, 마그마성 및 쇠설성암맥, 쳐트편, 사층리, 흔적화석, 과거지진기록 등의 다양한 지질특성을 간직한 지질학의 교과서라 불릴만한 명소입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두송반도

두송반도는 다대포항의 동쪽에 위치한 좁고 긴 반도로 주변에는 조선소와 공장지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두송반도에 인접해 있는 다대포의 다대(多大)라는 이름은 답달(答達)·다다라(多多羅)·다다량(多多良)에서 변하여 생긴 이름으로 부산의 지명(地名) 중 그 유래가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공룡의 전성시대였던 백악기 말의 부산지역고환경과 지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으뜸명소인 두송반도는 과거 지진이 기록된 다양한 산출상태의 쇄설성암맥과 고지진암이 절경을 이룹니다. 퇴적층에서는 공룡알 둥지와 파편 화석이 나타나고, 이회암, 석화목, 환원점, 석회질 고토양 등의 흥미로운 지질특성들은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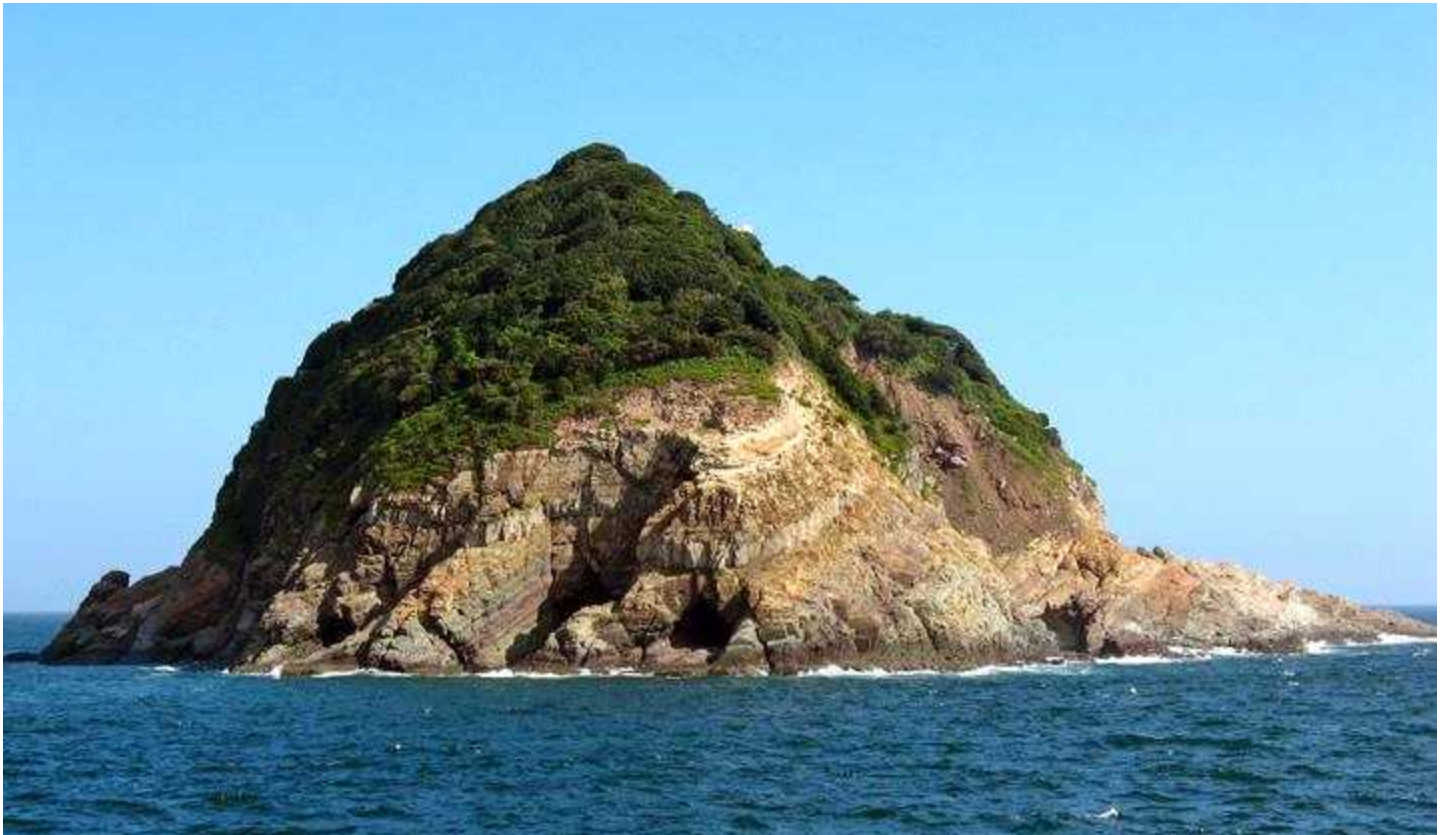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송도반도

송도반도는 송도해수욕장과 감천항 사이에 좁고 길게 발달한 반도로서 반도의 끝에는 암남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송도반도의 송도(松島)는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 위치한 지금의 「거북섬」을 가리키는데, 소나무가 그 섬에 자생하고 있어 송도라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송도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민들이 송도유원주식회사를 설립(1913. 7)하고 송도에 '수정(水亭)'이란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송도의 실체는 허물어지고 거북모양의 바위만 남아있습니다. 특히 송도반도는 약 8천만년 전 백악기 말에 쌓인 하부다대포층과 그 후 부산지역 지각의 변형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다대포층의 퇴적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화쇄류암,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현무암, 이들을 관입한 유문암 등의 다양한 암석을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으뜸명소입니다. 공룡골격과 공룡알 등지화석, 석회질 고토양, 암맥과 광맥, 단층, 연흔, 환원점 등의 독특하고 다양한 지질기록을 감상할 수 있는 트레일코스가 송도해수욕장에서 암남공원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두도

두도는 서구 송도반도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섬으로 두도(頭島)라는 지명은 대가리섬에서 유래하였으며, 인근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대가리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도는 갈매기의 천국으로 두도의 바위는 온통 갈매기의 배설과 둥지로 인해 회색빛으로 변하여 있습니다. 특히 송도반도 남쪽의 무인도로 동백나무, 비쪽이, 해송 등의 다양한 자생식물과 바다 산호, 갈매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수려한 한려해상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안절벽을 따라 백악기말에 퇴적된 하부다대포층과 화산암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공룡알둥지화석, 부정합, 암맥, 단층, 꽃다발구조 등의 독특하고 다양한 지질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태종대

태종대(太宗臺)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영도의 남동단에 위치합니다. 백악기말에 호수에서 쌓인 퇴적층이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만들어진 파식대지, 해식애, 해안동굴 등의 암벽해안으로 유명한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 경관지입니다. 태종대 전망대에서는 해안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맑은 날엔 저멀리 대마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상혼펠스, 슬럼프구조, 암맥, 단층, 꽃다발구조 등의 다양한 지질기록과 신비스러운 천연암벽화, 자갈마당 등의 경관이 어우러진 으뜸명소로 해안식물 생태코스, 태종대 전망대, 영도해양문화공간으로 이어지는 트레일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태종대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삼국 통일의 고된 과업을 마친 후 활쏘기 연습을 한 장소였기에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망부석이라 불리는 엄지손가락처럼 치솟은 바위가 사후(射侯)*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오륙도

오륙도(五六島)는 남구의 이기대 끝부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여섯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섬이 다섯으로 보였다가 여섯으로 보였다 해서 오륙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우삭도(방패섬과 솔섬)의 중허리에 물이 들면 두 섬으로 나누어져 여섯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하나로 붙어서 다섯 섬이 된다고 합니다. 「동래부지(1740)」의 오륙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섬이 다섯으로 보였다가 여섯으로 보였다 하는 것은 보는 위치에 따라 한 개의 섬이 가려져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륙도는 각 섬마다 가파른 해안절벽과 파도의 침식에 의한 파식대, 각양각색의 해식동굴 등의 지형과 오랜 세월동안 사람의 간섭없이 자라난 동식물들, 그리고 짙푸른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륙도는 이기대 지질명소와 같은 화산암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12만년 전까지는 육지와 연결된 작은 반도였던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거센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육지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이기대

이기대는 장산봉이 바다로 면한 동쪽 바닷가에 있는 대(臺)입니다. 「동래영지」의 산천조에는 이기대(二妓臺)라 적고 '左營南十五里 上有 二妓場 云(좌수영에서 남쪽으로 15리에 있다. 위에 두 기생의 무덤이 있어서 그리 말한다)'란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수영성을 함락시키고는 경치 좋은 이곳에서 축하잔치를 베풀었는데 수영의 기녀 두 사람이 잔치에 참가하였다가 왜장에 술을 잔뜩 권하고 술 취한 왜장과 함께 물속에 떨어져 죽었다는데서 이기대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기대는 약 8천만 년 전 격렬했던 안산암질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 화쇄류가 쌓여 만들어진 다양한 화산암 및 퇴적암 지층들이 파도의 침식으로 발달된 해식애, 파식대지, 해식동굴과 함께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오륙도까지 이어지는 트레일코스를 통해 구리광산, 돌개구멍, 말꼬리구조, 함각섬석 암맥 등의 다양한 지질 및 지형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장산

장산은 해운대구와 기장군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장산의 장(叢)자는 '거칠다'라는 의미와 '거친복숭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친복숭아는 돌복숭아인데 표면껍질에 가시가 많이 돌아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산에는 거친복숭아가 많았다고 전해져 장산이라는 명칭은 돌복숭아가 많은 산이라는데서 연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장산은 약 7천만 년 전 격렬했던 유문암질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 용암, 화쇄류로 이루어진 산으로구과상유문암, 유문암질 응회암, 반상유문암 등의 다양한 화산암들과 장산폭포, 돌서령, 인셀베르그 등의 웅장한 지형이 넘쳐납니다. 원형의 산체로서 산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도시를 벗어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장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해운대, 광안대교 등의 해안도심 경관이 절정입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금정산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산으로 금정산성, 범어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금강공원, 산성마을 등의 명소가 있어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금정산이라는 이름은 범어사 창건의 금샘 설화에 나타나는데, '금정산 산마루에 우물이 있어 그 물빛이 금색이고 그 속에 금색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범천(梵川)으로부터 내려와 놀았다.'하여 산 이름을 금정산(金井山)이라 하고, 그 아래에 절을 지어 범어사(梵魚寺)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범어사 창건사적」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곡동과 화명동의 패총, 복천동 고분군, 온천동의 무문토기 등의 선사시대 유적을 보면 선사시대에서부터 금정산 자락에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남문주변이나 산성마을에도 오랜 취락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정산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내규모로는 우리나라 최대인 금정산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정산은 약 7천만 년 전 지하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화강암이 융기하여 형성된 부산 땅의 뿌리를 이루는 산입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져 만들어진 기암절벽, 토르, 나마, 인셀베르그, 블록스트림 등의 우아한 화강암 지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범어사, 금정산성 등의 부산의 역사유적과 다양한 산악식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탐방 중 산정상에서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산성막걸리도 일품입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구상반려암

구상반려암은 황령산 중턱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구생성과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암석군입니다. 구상반려암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여 8개국 14군데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동양에서는 황령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구상반려암이 있는 황령산의 이름은 옛 동래 일대에 있던 거칠산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상반려암은 황령산 일대의 구상반려암은 약 6천만 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 만들어진 암석으로 암석의 표면에서는 가운데의 핵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을 그리며 광물들이 배열된 구상조직을 잘 보여줍니다. 반려암은 우리나라에서 분포가 매우 적은 희귀암이며, 구상반려암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암석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267호로 지정된 부산지질공원의 으뜸명소입니다.



◆ 부산국가지질공원(Busan National Geopark) 백양산

백양산은 금정산맥의 주능선에 있는 산으로 부산진구와 사상구의 경계를 이룹니다. 「동래부지(1740)」에 백양산 지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백양사는 금용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기록에서 관련 사찰 지명이 보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백양산은 1740년 이후 금용산에서 나누어지면서 생긴 이름이며, 백양사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양산의 남쪽 기슭에서 삼국시대 때 동평현(현 당감동 일대 소재)의 치소가 있었던 동평현 성터가 있고, 동쪽 산록 아래쪽으로는 선암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백양산은 다양한 암석들의 하모니, 부산의 역사책이라고 불릴 만큼 약 8천만 년 전 격렬했던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다양한 화산쇄설암, 화산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암, 그리고 지하에서 이들을 관입한 화강암까지 부산의 지질 변천사를 전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퇴적암의 석회질 고토양층이 녹아 만들어진 석회동굴, 폭포, 돌서령, 토르, 인셀베르그 등의 독특한 지형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형 명소입니다.



※ 사진 및 자료 출처 : 부산국가지질공원